

Prologue. 의대, 치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매년 수많은 수험생들이 메디컬 계열 진학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험 생활 내내 공부만 하던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메디컬 계열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 혹은 친척 중에 의사이신 분이 있지 않은 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나 언론 매체의 기사 정도입니다. 그러다보니 쉽게 선동되기도 하고 잘못된 정보를 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 역시 수험생 때는 막연히 메디컬 계열을 목표로 공부만 했고, 수능이 끝나고 정보를 얻기 위해 분주하게 오르비등의 사이트를 돌아 다녔습니다. 이 책은 저처럼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지인이 없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작은 보탬이 되고자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과대학은 총 6년의 교육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좀 더 세분화해보면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의학 전문대학원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서 학석사 통합과정으로 학생을 모집하고 있고 이런 대학의 경우에는 총 7년의 과정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제주대학교,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등)

치과대학과 한의과 대학 역시 마찬가지로 예과 2년과 본과 4년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과 2년 동안에는 의학에 관련된 과목을 직접적으로 배우기 보다는 일반 화학, 일반 생물학, 영어 등의 과목을 배웁니다. 그리고 본과 1학년 때 본격적으로 기초 의학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본과 2학년때 임상 의학에 대한 내용을 배웁니다. 그리고 본과 3-4학년때 병원 실습을 하면서 실제 환자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구체적인 커리큘럼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자세하게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영원한 떡밥 지방 메디컬 vs 서울권 공대

점수가 너무 좋아서 서울권 의대를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왔다면 하지 않을 고민이지만, 서울권 의대는 갈 수 없고 지방 소재의 의대만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왔을 때 sky 공대를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역시 지방 소재의 메디컬에만 진학할 수 있는 수능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sky 일반과와 지방 메디컬 사이에 고민을 했습니다. 보통, 이것에 대해 고민을 하는 분들은 주로 서울에서 10대를 보내서 지방으로 오기를 주저하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수험생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 전문직 라이선스의 가치 vs 서울 life